

國際化時代의 韓國經濟

尹 起 重*

〈目 次〉

- I. 國際環境의 變化
- II. 韓國경제의 전략
- III. 결론

I. 國際環境의 變化

國際經濟는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러이 國際化時代를 맞게 한 몇가지의 불가피한 環境變化가 생겼다. 그 하나는 UR타결이요, 둘째는 갑작스런 북미지역의 NAFTA형성, 세째는 유럽의 EC통합, 그리고 네째는 韓國經濟의 해외 의존도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환경의 변화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더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것은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 새로운 현실이 전개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서쪽에서 동쪽으로 매년 가속적으로 자본이 유입되어 아세아의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점이다. 한 잡지사의 조사에 의하면 1991년에 390억불이, 1992년에는 500억불이, 그리고 1993년에는 873억불이 서양에서 동쪽으로 유입되었는데 1993년에는 그 중 43%에 해당되는 375억불이 동남아시아에 투자되었다 한다. 동남아시아의 변화에 주목되는 첫째 문제는 Nies국들의 동향이다. 여기에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 즉 대만,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이다. 이들은 한국을 제외하고 모두가 1인당 GDP가 10,000불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싱가폴은 중주국 영국의 그것을 이미 초과하고 있고, 대만의 외화보유고는 1993년 11월말 현재 895억불로 미국의 750억불을 상회하고 있다. 또 이들이 모두 중국인이라는 것에 주목하게 된다. 1991

*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년 대중국 직접투자액은 120억불, 1992년의 그것은 580억불인데, 이 가운데 80%가 중국화교에 의해서 투자되었다 한다. 홍콩은 1997년에 중국과 통합되지만 한국이외의 다른 Nies국들은 화상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ASEAN회원국들의 최근 동향에 대해 주목하게 된다. 이들은 1980년 중엽까지만해도 정체상태에 있었지만, 1985년 9월의 플라자합의와 일본 엔고의 진행, 그리고 Nies국들의 노동공급의 한계, 즉 임금인상과 노사분규등으로 Nies국들의 생산공장이 이들 ASEAN국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이들의 공업생산품의 수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위 저임금을 무기로 했던 Nies국들의 지위가 이들 ASEAN국들에게 이전된 셈이다. 다만 이들의 약점은 사회 간접자본의 불완전을 들 수 있다.

중국대륙이 부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한 이후의 변화에 주목하게 된다. 세계은행의 추정에 의하면, 연안지역인 광둥과 상해지역의 1인당 GDP는 약 2,000불이라고 한다. 1990년의 GDP는 2.2조불(일본이 1990년 2.9조불)인데 연평균 7%씩 성장하면 12년후인 2,002년에는 대만과 홍콩을 통합한 중화권의 경제규모는 세계 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체로 1인당 GDP가 300내지 400불정도면 내구소비재의 수요가 폭발한다고 한다. 우리의 경험도 그러했다. 1960년말에서 1970년대초 냉장고, TV,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수요가 가속적으로 증가했다. 중국은 과거에 식량이 배급제도였기때문에 농촌인구가 쉽게 공장지대로, 또 도시로 집결할 수 없었으나 이제 식량의 배급제가 해소되고 자유거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임노동관계가 쉽게 형성될 것으로 본다. 장래나 현재 일본의 경제력도 간과할 수 없다. 1992년 우리의 GDP가 3,057억불인데 반해 일본의 그것은 3조7천 억불이나 된다.

끝으로 산업에서 비교우위가 크게 변한 점을 들 수 있다. 한 증권연구서에 의하면 세계적인 공룡기업 IBM과 GM사는 적자로 허덕이는데 비해 Glaxo Holding과 Benetton은 고도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한다. 또 7월25일자 Fortune지에 의하면 Nippon Steel과 Nintendo와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도 흥미롭다. 과거 Nippon Steel에서는 이음매가 없는 강관생산으로 세계 시장을 석권했고, Nintendo의 주종은 어린이 오락용 Software이었다. 그런데 1993년도의 매상고가 Nippon Steel은 255억불인데 반해 Nintendo는 45

억불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윤에서는 Nintendo가 4억9천만불로써 매출액의 11%인데 반해 Nippon Steel은 5억불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IBM의 경우도 1985년을 정점으로 적자경영이 지속되고 있다. 즉 1991년에 29억불, 1992년에는 49억불, 그리고 1993년에는 80억불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인원도 2년간에 6만5천명이나 감원하여 현재 26만7천명이다. 이와같이 비교우위는 시간경과에 따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II. 한국경제의 전략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환경의 변화는 첫째 ASEAN의 등장으로 한국의 비교우위는, 즉 과거의 경쟁력은 이미 상실된 점, 둘째는 공산품으로 부터 농산물에 이르는 모든 상품시장은 완전 개방된 점, 셋째는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우리의 산업정책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비교우위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정보산업으로의 이행이 불가피 할 것이다. 예시하면 현재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 신용카드는 대표적인 정보산업이며, 또 한편에서 지식집약산업인 동시에 노동생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써 대체로 미국에 그 본부가 있다. 이들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얼마나 그곳으로 소리없이 흘러들어가는 가 짐작 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정보산업은 금융, 증권, 보험, 출판, 교육, 그리고 연구개발분야를 뜻한다. 이와같이 앞으로의 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정보산업으로의 이행이 불가피하다.

제조업의 경우는 두가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격이 가장 싼것이 아니고는 존립할 수 없다는 점, 다른 하나는 제조업의 경우도 연구개발에 의한 신제품의 구상, 즉 R&D에 주력해야 된다는 점이다. 또 보다 효율적인 생산기술의 개발과 시장조사를 수반하는 일관된 산업정책이 요구된다.

치열한 국제경쟁시대를 맞으면서 정부의 역할도 크게 변해야 할 것 같다. 정보사회를 맞으면서 교육, 연구, 의료, 복지, 그리고 정보의 하부구조 구축이라는 신사회자본의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식자본을 공공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예로써 초, 중, 고, 대학을 막론하고 해외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교육은 국가의 100년 대계라는 대명사를 흔히 애용하건만 다른 한편에서 교육산업은 부가가치가 100%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절제한 규제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불가피하게 해외유학을 선택하게 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다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합리화에도 주력해야 할 것 같다. 경쟁력의 강화라는 대명제앞에, 또 정보사회라는 새시대에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차별적으로 신속히 대응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이고 정부규제 의존에 대하여 재고의 여지가 있다.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정보망이 구축되고 PC에 의한 처리능력이 오늘과 같이 향상된 상태에서는 중앙에 집중될 필요성이 상실된다. 중앙집권체제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사회주의 붕괴로 입증되었다. Benetton사가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는 것도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평가하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체제는 그 고유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가 시장경제의 효율에 패배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예로서 10개종류의 투입물에 의해서 10개의 생산품이 생산된다할 때 계획의 대상은 100가지가 된다 (10개의 투입물 * 10개의 생산품). 이들이 10개의 분산된 공장에서 생산된다면 10000개의 계획이 필요하다 $\{(10\text{개 투입물} * 10\text{개의 공장}) * (10\text{개의 생산물} * 10\text{개지역의 공장}) = 10,000\}$. 이러한 가정을 전제할 때 생산물이 100개면 100만개의 계획이, 그리고 1000개를 생산한다면 1억개의 계획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무리에 근거한 규제가 사회주의경제체제를 붕괴시켰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IBM은 사양길에 들어선 것 같은데 APPLE사나 Benetton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가 의사결정체제가 분산 분권화된데 있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의 25%가 수도권에 집중된 곳에서는 분산과 분권적 조직의 개편에 따른 자율화가 국제화에 대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결 론

현재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는 막중하다. 불과 얼마전에 침체된 농경사회

와 가부장제의 가족조직에서 살아오다 갑작스러운 산업사회를 맞아 가치의 갈등을 느끼게 했다. 현재는 가부장제의 대가족의 농경사회에서 황금만능의 산업자본주의 시대를 맞아 노부모를 뒤로 한 채 도시에 집중, 시장경제의 경쟁속에서 갖은 정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인구의 과밀속에서 교통의 체증, 공해, 물가고, 그리고 노사간의 쟁의속에서 생존경쟁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적인 생존경쟁에서 일보 전진하여 국제간의 격심한 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즉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기업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고 부가가치율이 보다 높은 산업을 찾아 총력을 경주할 때라 생각한다.

현재의 경쟁에서의 생존뿐만이 아니라 장래 우리에게 더 큰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즉 통일을 위한 경제적 비축, 복지사회실현을 위한 제반의 준비, 노령화사회에 대한 준비등 끝없는 과제가 안겨져있다. 현재의 경쟁에서 생존한다 해도 앞으로의 새로운 과제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문화 문명국으로써의 입지가 동요 될 것이다.